

3. 모공편(謀攻篇)

손자는 군사를 동원하지 않고서도 적을 굴복시키는 것,
인적·물적 손해를 보지 않고 적을 굴복시키는, 즉 싸우지 않고 이기는
모공을 강조했다.

孫子曰 凡 用兵之法에 全國爲上이오 破國次之하고 全軍爲上이오 破軍次之하고
손자왈 범 용병지법 전국위상 파국차지 전군위상 파군차지

손자가 말하기를 용병의 법에 있어서 적국을 온전한 체로 굴복시키는 것이 상책이오, 적국을 깨뜨려서 굴복시키는 것은 차선책이고

孫子曰 凡 用兵之法에 全國爲上이오 破國次之하고 全軍爲上이오 破軍次之하고

全旅爲上이오 破旅次之하고 全卒爲上 破卒次之하고 全伍爲上이오 破伍次之니라
전려위상 파려차지 전졸위상 파졸차지 전오위상 파오차지

적의 군(軍 : 12,500명), 여(旅 : 500명), 졸(卒 : 100명), 오(伍 : 5명) 등을 온전한 체로 굴복시키는 것이 상책이오, 그것들을 깨뜨려서 굴복시키는 것은 차선책이다.

全旅爲上이오 破旅次之하고 全卒爲上 破卒次之하고 全伍爲上이오 破伍次之니라

是故로 百戰百勝이 非善之善者也오 不戰而屈人之兵이 善之善者也라
시고 백전백승 비선지선자야 부전이굴인지병 선지선자야

이러한 까닭에 백번 싸워 백번 이기는 것은 최선의 방법이 아니며 싸우지 않고 적군을 굴복시키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다.

是故로 百戰百勝이 非善之善者也오 不戰而屈人之兵이 善之善者也라

故로 上兵 伐謀하고 其次 伐交하고 其次 伐兵하고 其下 攻城이라
고 상병 벌모 기차 벌교 기차 벌병 기하 공성

그러므로 최상의 용병법은 계략으로 이기는 것이고, 그 다음은 외교적으로 고립시키는 것이고, 그 다음은 군대를 치는 것이고, 최하는 적의 성을 공격하는 것이다.

故로 上兵 伐謀하고 其次 伐交하고 其次 伐兵하고 其下 攻城이라

攻城之法이 爲不得已니 修櫓輶輶 具器械를 三月而後成하고 距堙을 又三月而後已니
공성지법 위부득이 수로분은 구기계 삼월이후성 거인 우삼월이후이

성을 공격하는 것은 부득이하여 하는 것이니, 방패나 공성용 병거를 수리하고 각종 장비를 갖추는데 3개월이 지나야 되고,
성벽 공격용 망루도 또 3개월이 지나야 완성되는 것이니,

攻城之法이 爲不得已니 修櫓輶輶 具器械를 三月而後成하고 距堙을 又三月而後已니

將不勝其忿 而蟻附之하여 殺士卒三分之一 하되 而城不拔者는 此 攻之災也라
장불승기분 이의부지 살사졸삼분지일 이성불발자 차 공지재야

장수가 분을 이기지 못하여 준비 없이 병사들을 성벽에 개미떼처럼 기어오르게 하여 그중 3분의 1을 죽게 하고서도 성을 함락시키지 못한다면, 이는 공성으로 인한 재앙인 것이다.

將不勝其忿 而蟻附之하여 殺士卒三分之一 하되 而城不拔者는 此 攻之災也라

故로 善用兵者는 屈人之兵하되 而非戰也오 拔人之城하되 而非攻也오
고 선용병자 굴인지병 이비전야 발인지성 이비공야

그러므로 용병을 잘하는 자는 적의 부대를 굴복시키되 싸우지 않고 하고, 성을 함락시키되 공격 없이 하고,

故로 善用兵者는 屈人之兵하되 而非戰也오 拔人之城하되 而非攻也오

毀人之國하되 而非久也오 必以全爭於天下라
훼인지국 이비구야 필이전쟁어천하

적국을 허물어뜨리되 오래 끌지를 앎으며, 온전한 상태로 상대를 항복시켜 천하를 다스릴 수 있게 된다.

毀人之國하되 而非久也오 必以全爭於天下라

故로 兵不鈍而利可全이니 此는 謀攻之法也니라
고 병부둔이리가전 차 모공지법야

그러므로 군대가 둔해지지 않고 그 이익도 온전할 것이니, 이것이 모공의 방법인 것이다.

故로 兵不鈍而利可全이니 此는 謀攻之法也니라

故로 用兵之法이 十則圍之하고 五則攻之하고 倍則分之하고
고 용병지법 십즉위지 오즉공지 배즉분지

그리고 용병법에서 적보다 10배이면 둘러쌀 수 있고, 5배이면 공격할 수 있고, 2배이면 분할 운용이 가능하고

故로 用兵之法이 十則圍之하고 五則攻之하고 倍則分之하고

敵則能戰之하고 少則能守之하고 不若則能避之라

적즉능전지 소즉능수지 불약즉능피지

적과 대등하면 맞서서 잘 싸우고, 열세하면 잘 지켜야 하고, 상대가 안 되면 잘 피해야 한다.

敵則能戰之하고 少則能守之하고 不若則能避之라

故로 少敵之堅은 大敵之擒也니라

고 소적지견 대적지금야

그러므로 적은 부대가 견고하게 버티다가는 강한 적에게 사로잡힐 것이다.

故로 少敵之堅은 大敵之擒也니라

夫 將者는 國之輔也니 輔周則國必強하고 輔隙則國必弱이라
부 장자 국지보야 보주즉국필강 보극즉국필약

무릇 장수는 나라의 중요한 보좌역(뒤통)이니 보좌가 치밀하면 나라가 반드시 강해지고, 보좌가 엉성하면 나라는 반드시 약해진다.

夫 將者는 國之輔也니 輔周則國必強하고 輔隙則國必弱이라

故로 軍之所以患於君者 三이니
고 군지소이환어군자 삼

임금으로 인해 군대에 잘못이 생기는 일이 세 가지가 있으니

故로 軍之所以患於君者 三이니

不知軍之不可以進하고 而謂之進하며

부지군지불가이진 이위지진

군대의 진격할 수 없는 상황을 알지 못하고 진격하라 하며

不知軍之不可以進하고 而謂之進하며

不知軍之不可以退하고 而謂之退를 是謂糜軍이오

부지군지불가이퇴 이위지퇴 시위미군

후퇴할 수 없는 상황을 알지 못하고 후퇴하라 하는 것, 이를 일컬어 군을 속박한다고 한다.

不知軍之不可以退하고 而謂之退를 是謂糜軍이오

不知三軍之事하고 而同三軍之政이면 則軍士惑矣오

부지삼군지사 이 동삼군지정 즉군사혹의

군의 사정을 알지 못하고 군사행정에 개입하면 군사들은 미혹스럽게 될 것이다.

不知三軍之事하고 而同三軍之政이면 則軍士惑矣오

不知三軍之權하고 而同三軍之任이면 則軍士疑矣리니

부지삼군지권 이 동삼군지임 즉군사의의

삼군의 임기응변(權)을 모르고 삼군의 소임을 간섭하면 군사는 의심한다.

不知三軍之權하고 而同三軍之任이면 則軍士疑矣리니

三軍이 旣惑且疑면 則諸侯之難이 至矣리니 是謂亂軍引勝이니라
삼군 기혹차의 즉제후지난 지의 시위난군인승

동치자가 군대내부에 혼란이나 의심을 초래하게 되면 다른 국가의 침략을 받게 될 것이니, 이것은 스스로를 혼란케하여 적에게 승리를 주게 되는 자멸 행위이다.

三軍이 旣惑且疑면 則諸侯之難이 至矣리니 是謂亂軍引勝이니라

故로 知勝이 有五하니 知可以與戰과 不可以與戰者 勝하고
고 지승 유오 지가이여전 불가이여전자 승

승리를 아는 것에는 다섯 가지 조건이 있다. 같이 싸워야 할 것과 같이 싸워서 안 될 것을 아는 자는 이긴다.

故로 知勝이 有五하니 知可以與戰과 不可以與戰者 勝하고

識衆寡之用者 勝하고 上下同欲者 勝하고 以虞待不虞者 勝하고
식중과지용자 승 상하동욕자 승 이우대불우자 승

병력의 수에 맞게 작전을 펼칠 줄 아는 자는 이긴다. 위 아래로 왕과 국민이 같은 마음이면 이긴다.
철저하게 준비된 자는 그렇지 못한 자를 이긴다.

識衆寡之用者 勝하고 上下同欲者 勝하고 以虞待不虞者 勝하고

將能而君不御者 勝하나니 此五者는 知勝之道也라
장능이군불어자 승 차오자 지승지도야

장수가 유능하고 임금의 간섭하지 않는 자는 이기나니 이 다섯가지는 승리를 미리 알 수 있는 방법이다.

將能而君不御者 勝하나니 此五者는 知勝之道也라

故로 曰 知彼知己면 百戰不殆하고 不知彼而知己면 一勝一負하고
고 알 지 피 지기 백전불태 부지피이지기 일승일부

그러므로 적을 알고 자기를 알면 백번을 싸워도 위태롭지 않고, 적을 모르고 자기만을 알면 승부는 반반이고

故로 曰 知彼知己면 百戰不殆하고 不知彼而知己면 一勝一負하고

不知彼不知己면 每戰必殆니라
부지피부지기 매전필태

적을 모르고 자기를 모르면 싸울 때마다 반드시 위태롭다.

不知彼不知己면 每戰必殆니라